

일본의 산업별 내수 및 경쟁력 전망

* 이 자료는 미즈호은행이 발표한(『미즈호산업조사/56, 2016.12.30』) 「특집, 일본산업의 중기전망-향후 5년(2017-2012)」 'Ⅲ. 향후 5년 일본산업의 경쟁력' 등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- 헬스케어, 로봇, IoT관련 산업은 고성장
- 석유, 제지·펄프 수요는 구조적으로 감소
- 자동차, 전자부품, 공작기계와 로봇분야는 향후 5년간 높은 경쟁력 유지
- 저부가가치 분야는 경쟁력이 저하
- 비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해외전개가 과제

1. 산업별 내수 전망

□ 2017년 일본경제는 회복기조에

- 2016년 일본경제는 2015년과 같은 정도의 성장률을 보임
 - 현재 소비마인드가 개선되고 개인소비도 바닥을 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해외경제의 회복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음
- 2017년은 신흥국경제가 회복세로 반전되고 엔고의 영향도 완화됨에 따라 설비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수의 완만한 회복도 예상됨

□ 향후 5년간 인구감소 하에서도 소비는 완만한 증가

- 2021년까지는 인구감소가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5년간 그 감소폭이 2% 정도에 머무르는데다 소비수준이 높은 단신세대의 증가나 인바운드 수요의 확대에 힘입어 소비전체로는 완만한 성장이 예상됨
- 현재 확대되고 있는 인바운드 수요는 올림픽 후에도 계속 확대되어 2021년에는 방일 외국인구가 약 3,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, 특히 소매 및 가공식품, 호텔 등의 관광관련 산업 등에서 수요 확대가 예상됨
- 이에 더하여 일부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증가가 예상됨

- 고령화의 진전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외에, 로봇분야에서는 자동화수요가 비제조업에도 확산, IoT의 진전으로 정보서비스와 전자부품분야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2020년 올림픽까지는 제5세대통신규격(5G)의 정비 및 자동운전의 실증실험 등이 계획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신규사업영역의 창출·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음

□ 2021년까지 인구감소에 의한 내수침체 압력 증가

- 그러나 인구감소에 의한 내수침체 압력은 2021년까지 앞으로 한층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낙관은 불허
- 향후 5년간을 보더라도 주택·건설, 자동차판매에서는 인구감소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소재나 물류 등의 관련 산업의 수요에도 축소압력으로 작용할 것임
- 특히 2020년대에 들어오면 올림픽 특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총 세대수가 감소로 반전될 전망이기 때문에 인바운드 수요의 동향여하에 따라서는 소매 및 가공식품 등에서도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
- 또한 이미 일부 산업에서 현재화되고 있는 일손부족 등 공급 면에서의 제약도 앞으로 보다 심각화 될 우려가 있음
- 그 밖에 글로벌 동향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절약기술의 향상 및 페이퍼리스(paperless)화 등의 구조변화 등을 배경으로 석유제품과 종이·펄프분야에서도 수요 감소 추이가 계속 될 전망

2. 산업별 경쟁력 전망

□ 향후 5년간 많은 산업에서 완만한 성장 예상

- 먼저 향후 5년간 각 일본산업의 수요성장성을 보면, 많은 산업에서 대내외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완만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- 축소가 예상되는 것은 일본의 인구감소, 세계적인 수급악화의 영향을 받기 쉬운 주택과 일부 소재 분야임

□ 글로벌 경쟁력 향상, 높은 경쟁력 유지 산업은 소수에 불과

- 한편 글로벌 경쟁력의 향상,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은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임

- 유럽·미국 선진국과의 경쟁에 더하여 신흥국기업도 자국시장의 성장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, 일본기업의 경쟁환경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격화될 것임
- 이에 더하여 첨단기술분야 등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·미국의 글로벌 탑기업이나 풍부한 자금을 가진 중국기업이 대형 M&A를 실시하는 등 수익력, 기술력을 높이고 있음
- 이와 같은 경쟁환경 속에서 많은 일본산업들의 향후 5년간 글로벌경쟁력 향상은 전망하기 어렵고, 전체적인 경쟁력은 저하될 우려가 있음
-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더욱 저하되게 되면 해외시장의 성장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낙오될 우려가 있음
- 경쟁력의 방향성을 산업별로 볼 때, 제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일부 가공조립 산업에 그치고, 소재업종을 비롯하여 많은 산업에서 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됨

□ 기술적 우위성을 가진 산업은 향후 5년간도 현상 유지

- 향후 5년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분야임
- 예를 들면, 철강에서는 하이엔드(high end)에 한정하면, 경합관계에 있는 중국과 기타 신흥국 기업과의 차별화가 가능할 것임
- 또한 스리아와세(조정·통합)과 카이젠(개선)으로 대표되는 생산노하우에 더하여 높은 요소기술력을 가진 자동차, 전자부품, 공작기계와 로봇분야에서는 기존의 우위성이 향후 5년간 계속,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

□ 저부가가치 분야는 신흥국기업의 대두와 유럽·미국·중국기업에 의한 대형 M&A에 의해 경쟁력이 저하

- 한편 석유, 범용화학, 저부가가치의 철강제품 등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수급악화, 가격경쟁력의 격화로 일본기업이 시장점유율을 유지,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
- 또 높은 기술력을 가진 중전 분야에서도 해외에서는 글로벌 톱 기업과 정부지원을 배경으로 한 중국기업과의 경쟁, 일본 내에서도 글로벌 톱 기업의 공세 등 어려운 경쟁 환경이 예상
- 의약품과 화학, 가공식품 등에서는 대형재편을 추진하는 유럽·미국기업과 일본기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사업 환경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음
- 신속한 사업재편·통합에 의해 성장을 위한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유럽·미국 기업에 비하여 일본기업의 대응은 부진한 편

□ 비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해외전개가 과제

- 비제조업은 대다수가 내수 의존형으로 해외전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5년간 글로벌 경쟁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움
 - 에너지 및 부동산, 건설, 물류 등에서는 경제규모가 세계 제 3위인 시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국내기반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 - 그러나 이들 산업에서는 해외전개를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향후 5년 내 가려질 것임
 - 정보서비스 분야에서는 각 산업의 IoT화에 따른 수요는 있으나 클라우드(cloud)화에 따른 종래의 수탁개발형 비즈니스로부터의 전환이 요구되는데 더하여, 일본 국내에서도 유럽·미국의 대형사업자와의 경쟁에 직면
 - 나아가 이업종 및 벤처의 진입 등 경쟁 환경의 격변기를 맞을 것이 예상되는 한편, 통신 분야에서는 해외 이업종기업의 대형매수에 의해 IoT시대에 선수를 침으로써 향후 경쟁력 향상이 예상

3. 시사점

- 한일 양국은 저출산·고령화로 노동력 제약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으로, 특히 한국보다 심한 일본의 인구감소와 저출산은 일본의 내수에 전체적으로 감소압력으로 작용
- 산업별로 감소압력으로 작용하는 산업도 있는가 하면 증가압력으로 작용하는 부문도 있음
- 석유, 제지·펄프 등은 일본의 내수가 감소하는 부문인 반면, 의약품, 의료기기, 헬스케어, 로봇, IoT관련 산업은 일본의 내수가 증가하는 부문임
 - 이를 한국의 對日 수출과 관련시켜 볼 때, 전자는 對日 수출의 유망성이 매우 떨어지는 반면, 후자는 對日 수출 유망성이 높음
 - 일본의 내수성장이 높은 분야는 일본과 경쟁력이 낮은 품목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여 일본 시장 진출을 모색,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임
- 그리고 일본의 산업별 경쟁력 전망과 관련하여 일본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이 유지될 수 있는 분야는 일본기업과의 제휴, 협력이 효과적임
 - 자동차, 전자부품, 공작기계와 로봇, 통신, IoT관련 부문이 이에 해당됨
 - 그리고 한일 양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에너지 및 부동산, 건설, 물류 등의 비제조업 부문 등에서 양국 기업간 제휴·협력도 효과적임. 